

“I am a child, but I have a child.”（私はまだ、子どもです。でも、もう子どもがいます。）

ある日テレビを見ていると、AC ジャパンのテレビコマーシャルが流れていました。それはまだ10代の女の子が赤ちゃんを抱っこしてこちらを見つめている映像でした。私はその数秒間のCMが心に刺さったのです。

実際、世界では女性であることを理由に不当な扱いを受け、差別を受けている国はたくさんあります。日本でもこの女性差別は社会問題にもなっています。特に、発展途上国の女の子や女性は貧しさの中にありながら、「女の子だから」と、女性であるというだけで社会の底辺に置かれ、学校に行けず、医療を受けられず、十分な食事を与えられず、普通の生活を送ることすら困難な状況にあります。1～5歳では祝福されない成長、6～11歳では働くための幼い命、12～18歳では早すぎる結婚・出産、19～24歳では認められない発言権や収入。様々な機会を制限され、暴力や性的嫌がらせを受けやすく、早すぎる結婚や家事労働を強いられます。近年では、男女という性別の違いによる差別をなくすことへの理解だけでなく、すべての人が平等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方が浸透してきています。しかし、今もなお、家事や育児は女性の仕事であるといった考えを持つ人も多く、女性に対する差別や偏見は残っているのです。「男女それぞれの役割」といった考えは地域の人々の価値観、伝統、慣習などによって無意識のうちに規定されていることが多く、社会や会社などの組織でもこのような考え方の影響を受けています。

性別にとらわれず、その人自身が自分らしく未来を自由に選ぶ社会、それが豊かな社会だと私は考えます。そうなることで、一人一人が特性や強みを生かせる社会になるでしょう。そして、「女の子だから、…」そのあとに続く言葉は、私たちの力で変えることができます。すべての女の子に未来を選ぶ権利が与えられる未来を、私は築きたいです。

"I am a child, but I have a child."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TV 를 보고 있는데 AC 재팬의 TV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10 대의 여자아이가 아기를 안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몇 초간의 광고가 제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여성차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자 아이들과 여성들은 가난 속에서 '여자니까'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저변에 방치된 채,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식사를 보장받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5 세에는 축복받지 못하는 성장, 6~11 세에는 노동을 위한 어린 생명, 12~18 세에는 너무 이른 결혼과 출산, 19~24 세에는 무시되는 발언권 및 수입. 다양한 기회를 제한 받으며, 폭력과 성추행을 당하기 쉽고, 너무 이른 결혼과 가사노동을 강요당합니다. 최근에는 남녀라는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것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사나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남아 있습니다. '남녀 고유의 역할'이라는 인식은 지역 사람들의 가치관, 전통, 관습 등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등 사회 조직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그것이 풍요로운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사람 한사람이 개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라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여자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